

“비승가적 후보 사퇴하라”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단체 잇단 성명 발표...선관위 등에 공문 접수

10월 28일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단체들이 중앙총회의원 입후보자 가운데 부적절한 후보를 골라 이들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10월 20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의원, 비승가적 후보 자격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70대 노스님을 유리적으로 폭행

한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 종립대학 동국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적 비판의 당사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후보한 흥덕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찰 토지를 매매해 종법위반 의혹이 있는 봉선사 초격 스님은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단자정센터는 "중앙총회가 대의·입법 독립기관으로서의 합리적 기능과 집행부 견

제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교구별 유권자 스님들은 투명하고 엄정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로 구성된 '청정승가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운동본부'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정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집행유예 중인 영배 스님과 봉선사 초격 스님 외에 수계 사실이 없는 은해사 법일 스님이 언급됐다.

공정선거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님들은 엄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종단의 자정 기능을 높이고 종단 스임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해법 잘 된건지 아직 알 수 없어”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봉은사 일요법회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인정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주지 임명을 제안했던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10월 17일 봉은사 일요법회에 초청법사로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화쟁위원회 보고서 공개 이후 봉은사 일부 신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법 스님은 법회에 앞서 신도회 임원들의 요청에 의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쟁위원회의 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일부 신도들은 '봉은사 직영 지정 반대'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화쟁위원회의 결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법 스님은 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스님은 법문에서 지론인 '불교 발전론'을 역설했다. 명진 스님은 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도법 스님은 법문에서 "명진 스님이 가꾸고 한국불교를 아끼는 분들이 갈망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화쟁위원회는 노력했다.

아직은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가 모순과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염려한다. 해법은 불교관·수행관의 확립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인)는 10월 20일 화쟁위원회의 봉은사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중결사는 "여전히 정치권력에 의해 종단이 좌지우지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16개 교구서 28일 경선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0월 16일 제15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119명이 입후보해 평균 1.4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흥사, 불국사, 쌍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봉선사 등 2명씩 입후보한 8개 교구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 외 16개 교구에서는 28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중앙총회의원 교구별 정원은 직할교구(조계사) 4명, 해인사 3명 외 교구는 2명씩이며, 직능 20명, 비구니 10명 등 81명이다.

조동섭 기자

◆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교구	입 후 보 자
직 할	정인, 태연, 범응, 정범, 종성
운주사	성직, 성호, 강설, 성재
신흥사	정념, 지원
월정사	삼해, 적현, 보인
법주사	정원, 현조, 장주, 각주, 해우
마곡사	원경, 견진, 노휴, 자암, 선일
수덕사	정목, 석정, 주경, 도신
직지사	장명, 법보, 정영, 법매
동화사	활중, 선문, 덕현, 현근, 지거
은해사	태관, 원조, 법일
불국사	운성, 정문
해인사	도현, 재경, 본오, 순민, 효담, 종월, 종범, 심우, 성공, 경성
쌍계사	종호, 원정
범어사	무관, 정오
통도사	오성, 종선, 보화
고운사	자현, 영공, 지현
금산사	성우, 원해, 법진
백양사	해용, 의연, 만당, 보연, 석장
화엄사	일문, 영관
송광사	진화, 원경
대흥사	보선, 법정
관음사	월공, 덕수, 종연, 유방, 세동
선운사	선법, 도정, 해오,
봉선사	일관, 초격
직능대표	대오, 향적, 법광, 장운, 정우, 불산, 정산, 법안, 원범, 무애, 해림, 정도, 범해, 덕문, 정호, 토진, 지홍, 영배, 본해, 각림, 종민, 성형, 해일, 계관, 일진, 상덕, 일운, 구과, 지홍, 지성, 탁연, 정문, 성관
비구니	

4대강 논의기구서 결론 짓자

조계종, 정부 등에 논의기구 구성 제안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4대강과 관련한 국민적 논의기구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 이전인 12월 15일까지 한시 운영하자고 정부·여야·시민단체·종교계에 제안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제안한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는 추진 측 인사 4인(한나라당 사문총장 등, 국토해양부장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찬성 지자체 단체장), 반대 측 인사 4인(민주당 사문총장 등, 4대강법대위 대표,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표, 반대 지자체 단체장), 중재자 4~5인(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가 위임하는 대표) 등 12~13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본위원회 산하에는 민주적 절차, 기술, 환경 등 주요 쟁점 혹은 4대강 유역별로 3~4개 실무위원회 분과를 둔다. 본위원회는 실무분과에서 작성된 실무안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쟁점은 플랫폼 형태의 TV 공개토론으로 진행하며, 논의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시민 대상의 공론조사에 의해 결론을 도출시킬 예정이다.

논의기구 출범 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는 1개월 여, 논의기구 활동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아무 결

론도 도출시키지 못하고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화쟁위의 입장은 단호했다.

화쟁위원회 4대강소위원회 위원장 법안 스님은 "쟁점 사안이 논의기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공론조사로 결론을 도출시키겠다는 것은 논의기구 참여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 누구든 논의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논의기구에서 합의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9월 16일 화쟁위원회가 개최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화쟁토론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4대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법안 스님은 "이번 논의기구가 성사되려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무원장스님도 필요시 직접 이웃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논의기구 참여를 위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이번 논의기구 제안은 4대강 사업의 지속·중단이 아닌 4대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국민적 합의의 의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근대유적지 사업 펼치는 개신교

템플스테이 반대 나섰다

불교 편향 사업이란 명목으로 대구시에 팔공산 역사공원조성사업 취소 압력을 넣어 사업을 무산시킨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구총)가 이번에는 정부 핵심 관광사업인 템플스테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총은 최근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템플스테이 국고 지원은 특정종교 재정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

기총은 "템플스테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각 교회에 배포하고 이를 상영했다.

대구총은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 저지를 결의하는 기도회를 열고 템플스테이 운영되는 100여 개 지역의 기독교연합회와 연대해 기도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이다. 또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 정지 가져분 신청과 헌법소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 동화사주지 성륜가 주축이 된 민족문화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진필)는 "근대 유적지 사업에 막대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개신교계가 전통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막고 나섰다"며 "동영상 상영 등에 법적 대응하는 한편 12월 1일 대구·경북 지역 12개 종단 사찰, 16개 신행단체들이 연대하는 대구불교총연합회를 창립하고 대구총의 조직적인 압력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별민된 성호 스님 심판청구 각하

조계종 법규위, 백양사 건 등은 심리 연기

총무원장을 사회법에 제소해 별민된 성호 스님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백양사 총림 지위를 묻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8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성호 스님의 청구 자격과 대상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이어 백양사 의연 스님 등이 제기한 '백양사 총림 유지에 대한 종헌위반 심판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총림 지정의 기한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심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법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은 정정인 B보살이 피징정 대상을 법규위원회에서 성호 스님으로 변경해 진행중이다.

조동섭 기자



양산 통도사는 10월 16일 개산 1365주년을 맞아 경내에서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이재진 부산시시장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보시용 추천도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법화경 독송!

유려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새롭게 태어난 우리말 법화경!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헤조 역/국판변형/금장/630쪽/18,000원/운주사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슬프고도 재미있는 이야기!

굿바이 티베트

죽음을 무릅쓴 망명길, 낯선 망명지에서 맞아야 하는 처참한 삶. 그러나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역경과 고난이 때로는 위대한 스승이 된다.

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 김화경 옮김/국판양장/384쪽/13,000원/하얀연꽃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책